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사랑기아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 점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May 2,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이사야 49:8-17 <b>우리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563장 - 예수 사랑하심을 (통일찬송 411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구은강 집사, 최내권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찬송 569장 -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4절) (통일찬송 442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갈라디아서 4:1-7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망에서 와서...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자녀의 성장과 미래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만남과 나눔의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 주일예배** 예배를 CDC 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zoom 과 CUMC 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읍시다.
- 2세 신앙교육** E-Learning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 / 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 시)에 참여합니다.
- 치유, 회복, 나눔**의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5월의 사역 - 어린이 주일(2), 만남과 나눔 주간(2-8), 아버지 주일/Mother's Day(9), 믿음 성장과 성숙 주간(9-15),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16-22), 선교 주간(23-29), 선교 주일(30)

♥ 생일 축하 ♥ 구 민(8) 김진숙(17) 구민우(16)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4/25	5/2	5/9	5/16
	박진성집사	구 민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4/25	5/2	5/9	5/16
	최내권집사/구은강집사		유덕하집사/홍정임집사	
주일안내위원	4월	5월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이유 / 이사야 45:1-7**

인본주의 교육과 문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간중심의 세계관에 물들어 가기 쉽다. 그 때문에 신앙도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체험하는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와 방법 모두를 아버지 뜻에 맞춘다. 따라서, 간절히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 놓는다. 또한,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의 차이를 겸손하게 새기게 되면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된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 이사야 49:8-17**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고난 받는 성도를 기억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큰 길을 놓으신다.

고난 가운데 있는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적싸움에서 승리하자.

###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 이사야 49:8-17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사야를 비롯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 결국 바벨론의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 가게 됐다. 그러나 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을 위해 일하셨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은 잊지 않으셨다. 그렇기에 '어미들이 혹시 젖 먹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면서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마련하신다. 9-10 절에서 하나님은 잡혀 있는 자를 풀어주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되,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내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

셋째,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며 대로를 놓아주신다. 하나님이 놓으시는 대로는 장애물이 없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장애물 위에 놓여지는 대로이다.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런 장애물을 앞에 두셨느냐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하시고, 그 위에 대로를 놓아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그 장애물을 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돌아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항상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심을 믿고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려보아야 한다. 모든 장애물을 또한 하나님께서 뛰어 넘도록 하시고 대로를 놓아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가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 말씀 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적자생존의 정글에서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나는 부모학교 강의를 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자녀는 이미 얻어놓은 영혼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자녀를 내 육신의 자녀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둘째,** 자녀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 받을 준비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심고 가꿔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자녀로 태어나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그의 구원은 ‘떼어놓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넷째,** 한집에 사는 내 자녀라도 언제든 세상에 빼앗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보내신 한 영혼이다. 그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호하며 또 훗날 효도를 받으면서 부모 자녀 간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야 한다. 하지만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심고 가꾸며 부모인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부모의 삶과 이야기로 전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 일을 위해 그 아이의 부모가 되게 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창 18:19).

이렇듯 부모는 가정을 ‘작은 교회’로 여기고 자녀를 ‘한 영혼’으로 보며, 부모 자신은 가정의 ‘영적 리더’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부모들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시달리며 너무 고단하고 지쳐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채 적자생존의 정글에서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지만 삶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신앙 교육보다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자신과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 같아서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주일이 된다.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세워주고 무장해야 할 시간은 덧없이 흐르고, 어느새 자녀는 부모를 닮은 성인이 되어 있다. 그런 신앙의 대물림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텐데 말이다. 자녀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두루 다니며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벧전 5:8). 부모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전제조건을 살펴보자.

#### 1. 자녀의 마음을 알아준다

자녀의 영혼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때 부모의 묵직한 진심이 필요하다.

내 자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학습에 온 신경을 쓰지만, 실은 영민한 자녀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 행복감을 느끼며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한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줄 때 부모 자녀 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때 비로소 부모가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 2. 부모가 모범을 보인다

부모의 좋은 가치관과 선택은 직접적으로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다.

부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일일이 말로 가르치지 말고, 부모 자신의 행동에 신경을 써서 모범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친구들과 잘 지내라고 하기 전에 부모가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기 전에 맡겨진 부모 역할에 행복하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부모의 모범이야말로 자녀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전제조건이다.

### 3.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다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가.  
또 자녀의 장래를 다 아는 양 거침없이 그들의 앞길을 좌우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세번째 전제조건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 3:5-7).**

크리스천 부모는 내 자녀를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자녀의 영혼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부모이다. 자녀의 영혼을 세상과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자녀 또한 무장시키는 부모이다.  
세상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심하는 부모이다.  
물론 이 모든 노력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사실을 마음이 깊이 새기고 자녀의 영혼을 얻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자.

박인경, 『부모 면허』

**나는 화가 났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애를 쓰는데  
아이가 그것을 몰리주고 누릴 줄 모르는 것이 속상했다.

이런 경우에 자녀에게 투자한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자녀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부모는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육아를 하는 것이  
내 열심과 자기만족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정, 내어드림> 이용규

부모의 조바심이 아닐 주님께로 나아가 좋은 여매를 맺는다.  
이용규, 『가정, 내어드림』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리더십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리더십”

2025 30주 5주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